“차 댈 곳도, 쉴 곳도 없다”…노선개편 후 조선대 버스 종점 ‘몸살’

해오름관운행 2배 이상↑…日 105대 투입

회차지 주차공간 부족 도로변 버스 세워

좁은 진출입로…차량·보행자 안전 우려

기사 휴게공간 없어 대학내 시설 활용도

市 “인근 부지 활용·내달 휴게시설 설치”



전남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주차공간 부족과 운전기사 휴게시설 부재 등으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9일 오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버스 종점. /이연상 기자

전남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을 종점으로 둔 운행 노선이 2배 이상 늘었으나 주차공간 부족과 운전기사 휴게시설 부재 등으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버스 종점에는 10여대의 시내버스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다.

회차지 양쪽에는 버스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한쪽에는 구획선과 다른 방향으로 버스들이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 버스 사이로 남은 공간도 비좁아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기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버스 운전기사 김민수(50대)씨는 “구획선대로 버스를 세우면 회전할 공간이 부족해 차량을 빼내기 어려워 한쪽에는 가로로 주차할 수밖에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회차지 밖에 버스를 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좁은 진출입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종점과 연결된 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한 데다 회차지 진·출입로마저 협소해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버스와 출발하는 버스가 마주칠 때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조선대학교 학생 장모(20대)씨는 “좁은 공간에서 버스 여러대가 계속 오가다 보니 차량 간 충돌은 물론 교내를 걷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걸어가다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며 “회차지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노선만 확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해오름관 종점은 지난달 3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기존 3개에서 7개 노선으로 확대됐으며, 하루 총 105대의 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편에 앞서 조선대학교와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회차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버스 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그러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주차 공간 내에서 버스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회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회차지 내 정차 가능한 차량은 당초 계획보다 적은 10~12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회차지에 별도의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버스 운전기사 김옥현(40대)씨는 “휴게공간이 없어 버스 안에서 쉬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인근 대학 건물까지 가야 한다”며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다른 종점에서 식사하거나 가스 충전을 마친 뒤 출발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시 측은 인근 유휴공간을 활용해 버스 대기 장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휴게시설도 조선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회차지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재 조선이공대 방면 인근 부지를 추가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운전기사 휴게시설은 당초 노선개편 이전에 설치하려 했으나 조선대 측의 이사회 심의 절차로 늦어졌으며, 다음달 심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노동청, 대불산단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산업안전감독관·공단 인력 투입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안전조치 미흡 시 엄정 조치 방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대불산업단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섰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권역 내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해 대불산단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선업 등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의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기계 방호장치 작동 여부,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조치,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상태 등 업종별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한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대불산단에서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산단 전반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신안군, 박우량 前군수 배임 혐의 고발

도시숲 조성 등 민선 7·8기 4개 사업

수의계약 939건 등 위법성 수사 의뢰

김태성 군수 “공공이익 보호위한 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9일 “최근 민선 7·8기 시절 추진된 주요 사업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명품 팽나무길 등)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등 4개 사업이다. 군은 막대한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숲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 전 수목이 식재된 절차상 흠결과 20년간 50억원의 태양광 수익이 예상되는 군유지를 넘긴 것이 군 재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전 숙소 건립은 총 40억원 중 27억3천만원에 달하는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기증수목 사업은 167만주를 기증받으면서 운송·굴취비 등 부대비용으로만 군비 429억원이 쓰였고 기증 사례금 234억원의 산정 기준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1섬 1정원화 사업은 특정 협동조합과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무려 939차례(총 399억원)에 걸쳐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고발은 군민 재산과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객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법적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 기자



‘2026 전남대학교 JOB FESTA’ 2026 전남대학교 JOB FESTA가 열린 9일 오전 전남대학교 5·18광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의 직무멘토링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조영권 기자

취객에 파손된 김성한 전 해태 선수 조형물 재설치

술에 취한 20대에 의해 파손됐던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이 복구돼 다시 설치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 설치된 김 전 선수의 조형물 복구 및 재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북구는 반복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조형물 아래에 높이 40㎝의 받침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의 손이 쉽게 닿지 않도록 했다.

복구 작업에는 약 1천500만원이 투입됐으며, 해당 비용은 조형물을 파손한 A(20대)씨 측으로부터 전액 배상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손으로 흔들어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해당 조형물은 북구가 김 전 선수의 용봉동 패션의거리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10월에도 취객 등에 의해 야구방망이 부분이 파손된 바 있다. /윤찬웅 기자

